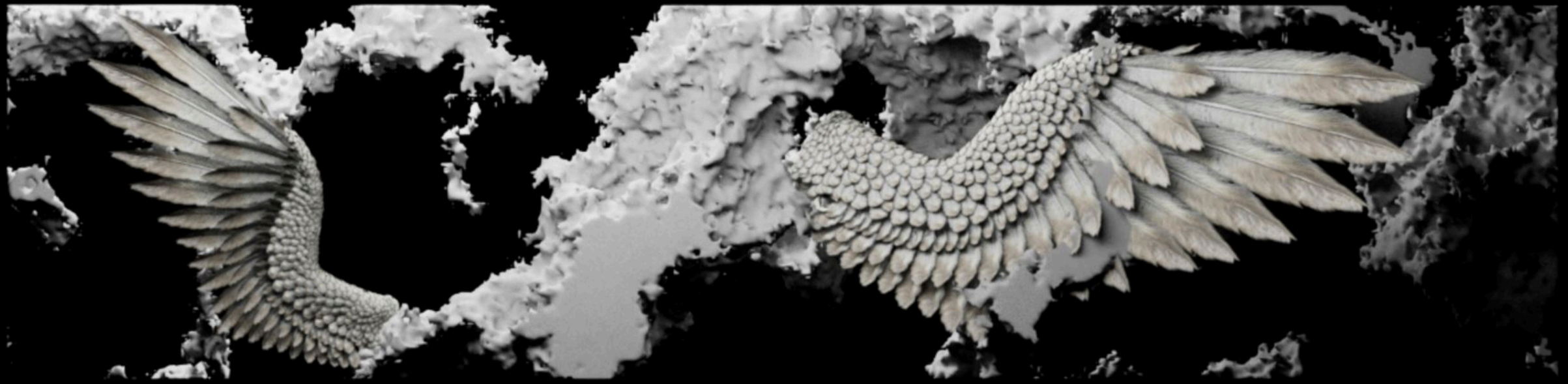
VANISHING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강이연 YIYUN KANG



CONFIDENTIAL

August 2022

VANISHING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생태계 종의 멸종 속도는 정상보다 최소 100배 이상 빠르다. 생태학자 폴 에를리히 (Paul Ehrlich) 등은 2015년 “인류에 의해 제6의 대멸종 (6th Mass Extinction)사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을 홀로세멸종 (Holoecene Extinction)이라 하는데,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폭발, 급격한 기후변화 등, 외부적 요인이 초래한 이전의 대멸종 사태와는 달리, 단 한 종, 즉 ‘인간’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홀로세멸종은 인간으로 인해 지구 종의 최소 75%가 사라질 수도 있는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을 뜻한다. 많은 연구들이 생물종 감소 속도가 과거 1000만년 사이의 평균치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 증가했으며 50만~100만종이 멸종위기를 맞은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인간은 지구 생물량의 0.01%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야생 포유류의 83%를 멸종시켰다. 야생 포유류는 인류가 농업을 하기 전보다 6분의 1로 감소했고, 해양 포유류도 고래 남획 등으로 인해 5분 1밖에 남지 않았으며, 식물도 절반이 멸종했다. 즉, 인간은 6500만 년 동안 유례가 없었던 양과 속도로 종을 말살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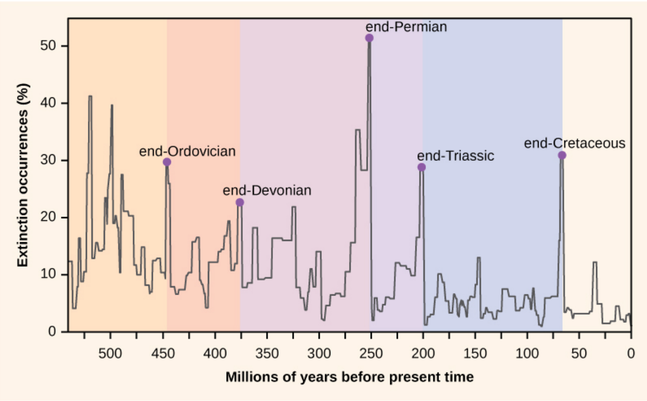
우리는 위험에 처한 다른 종의 쇠퇴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지탱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We ignore the decline of other species at our peril – for they are the barometer that reveals our impa*ct on the world that sustains us.)
— Mike Barrett, *Executive Director for Science & Conservation at* WWF-UK
https://www.aljazeera.com/news/2016/10/28/60-percent-of-global-wildlife-species-wiped-out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의식해야 한다. 생태학에서 유례가 없는 "지구적 초포식자”인 인류는 인간이 사라질 때에만 의미를 부여한다. 진정한 성장, 또는 존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초래한 사라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지형 속에서 드러나는 파편화된 날개,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은 화석의 움직임, 죽어있는 돌무더기에서 솟아나는 들꽃들,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환상적인 장면들은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드러나거나, 화석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 파편적인 존재들은 한 때 지구 상에 존재했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들을 암시한다. 이 작업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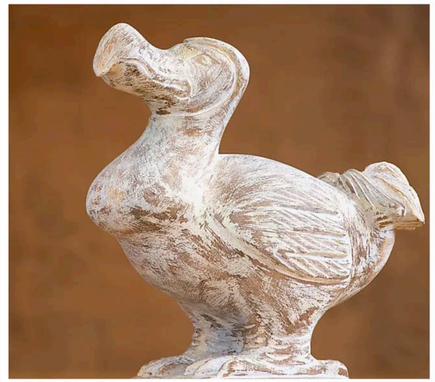
MAIN REFERENCE

Holocene Extinctions, Samuel T. Turve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ur Uncommon Heritage: Biodiversity Change, Ecosystem Services, and Human Wellbeing, Charles Perr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60 percent of global wildlife species wiped out, Al Jazeera, 2016
What is the sixth mass extinction and what can we do about it?, World Wildlife Fund,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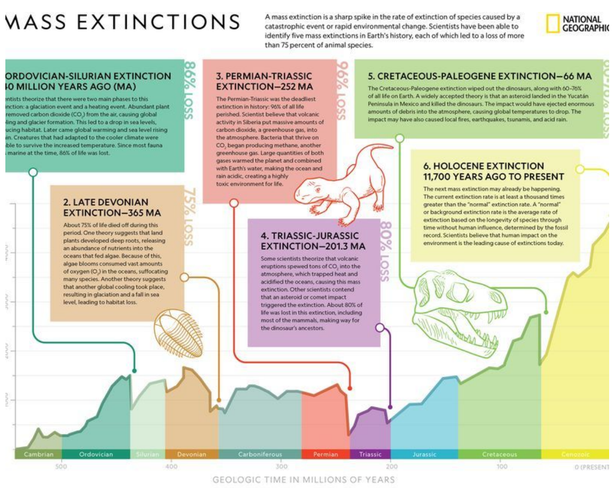
REFERENCE







ıritius, became extinct during the Holocene Period







RE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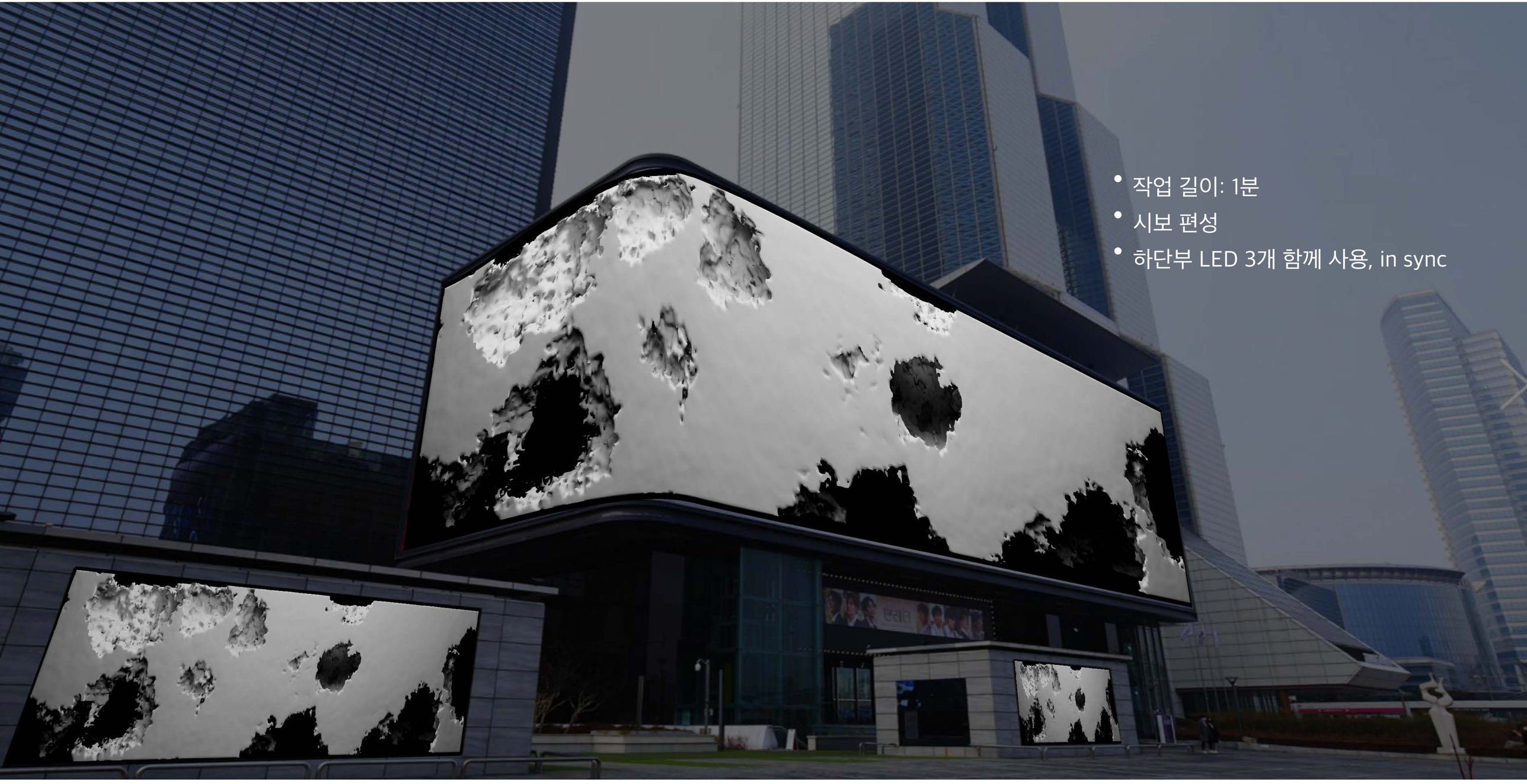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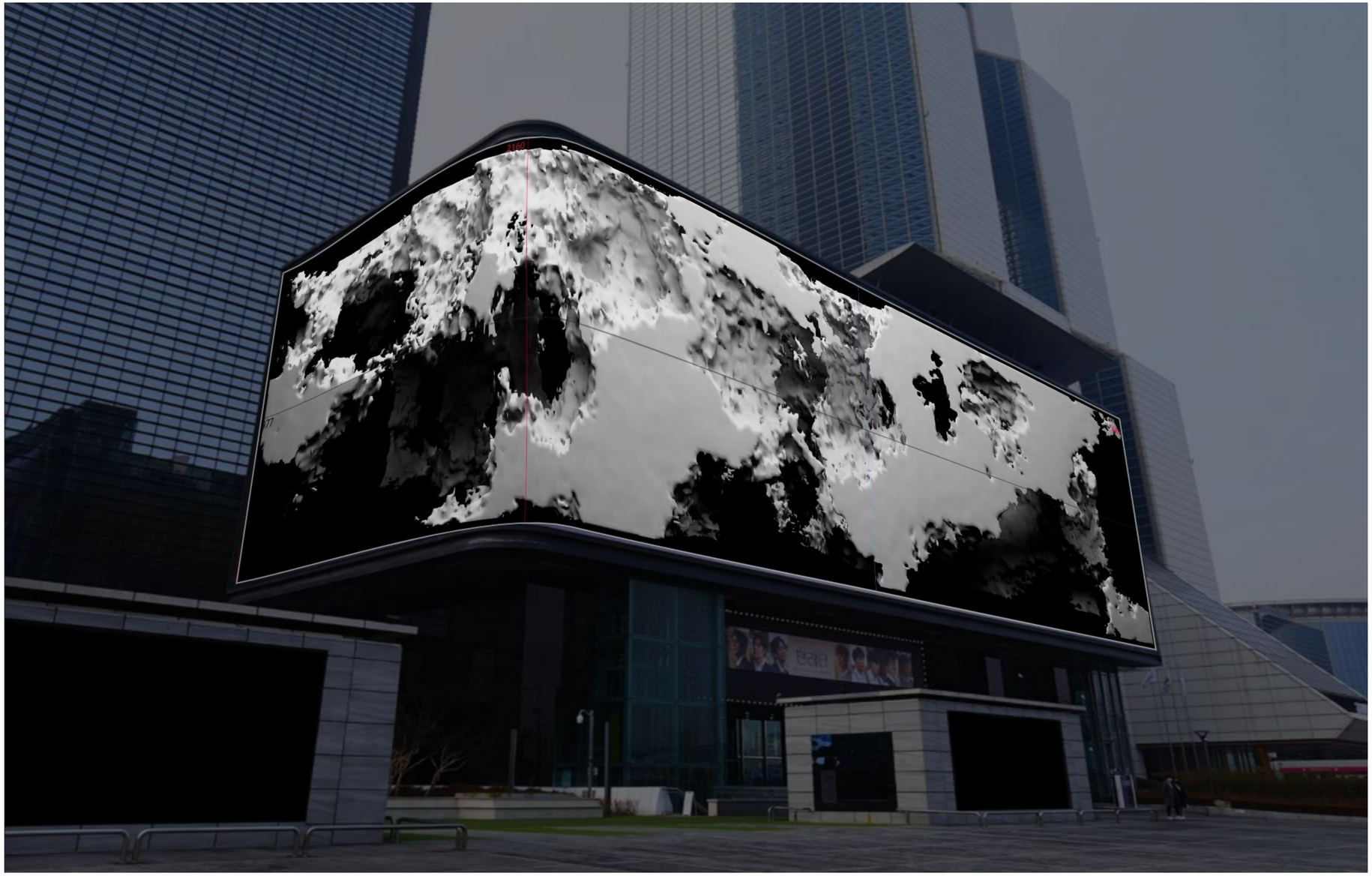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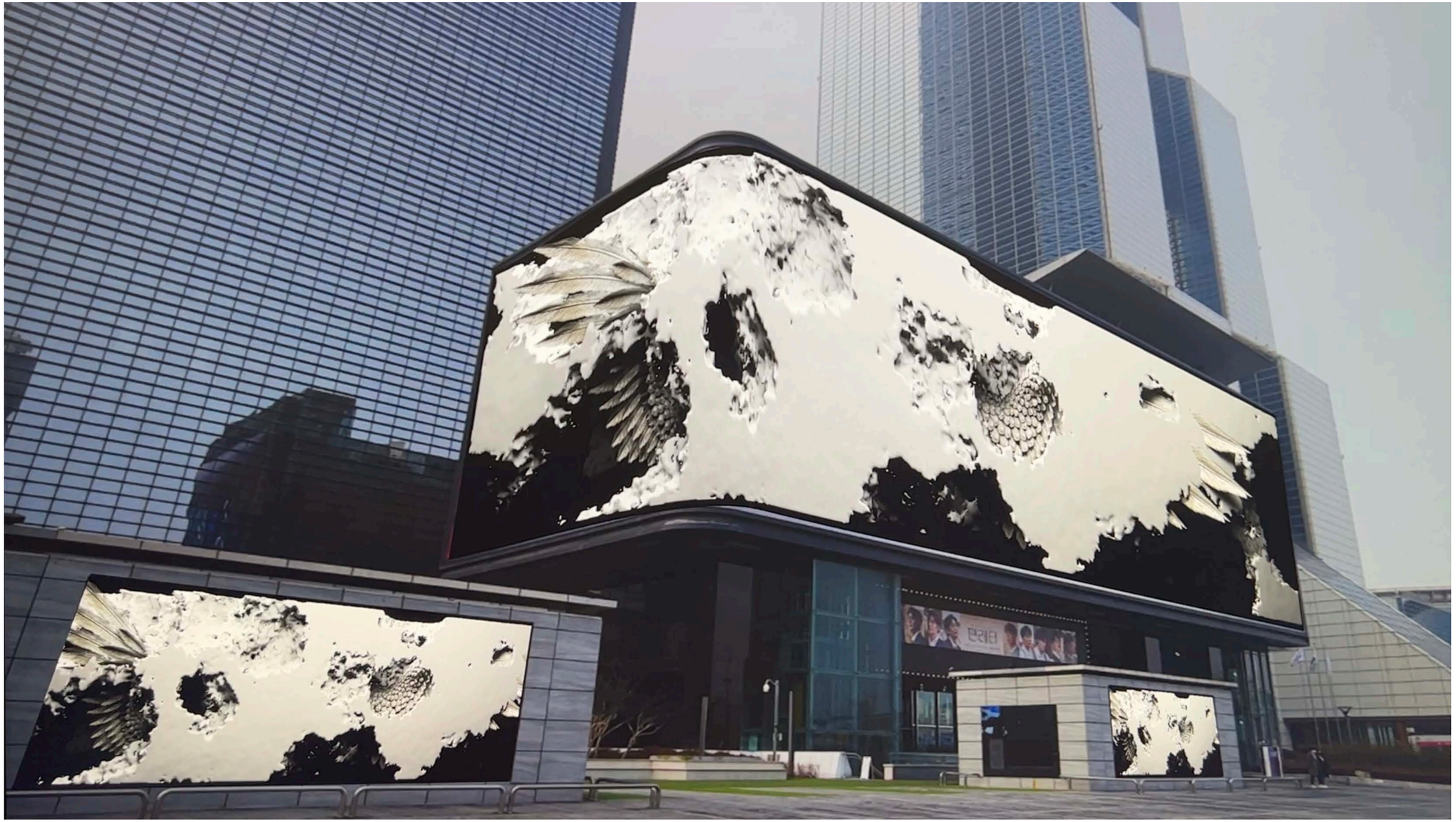


- 작업 길이: 1분
- 시보 편성
- 하단부 LED 3개 함께 사용, in sy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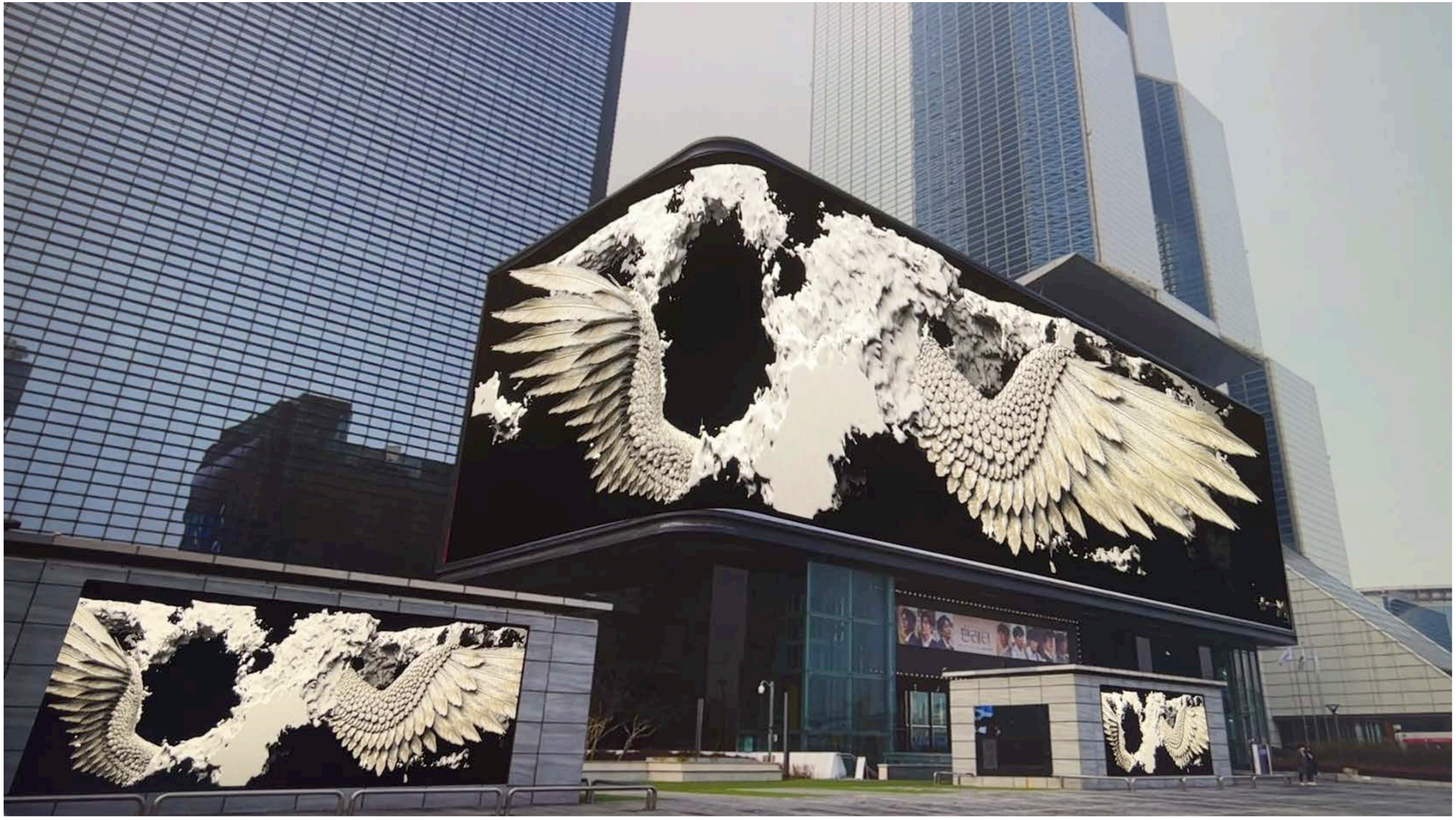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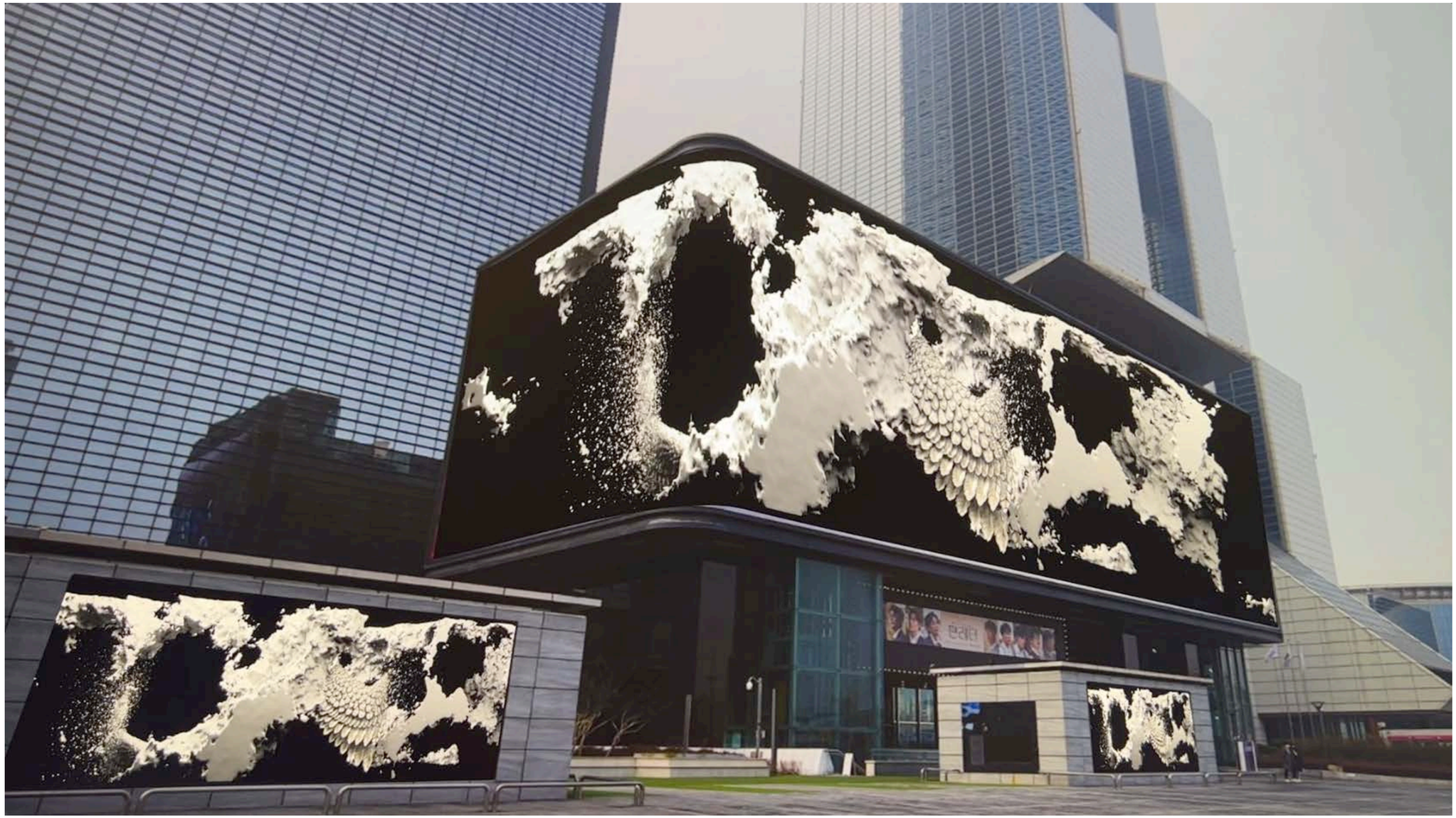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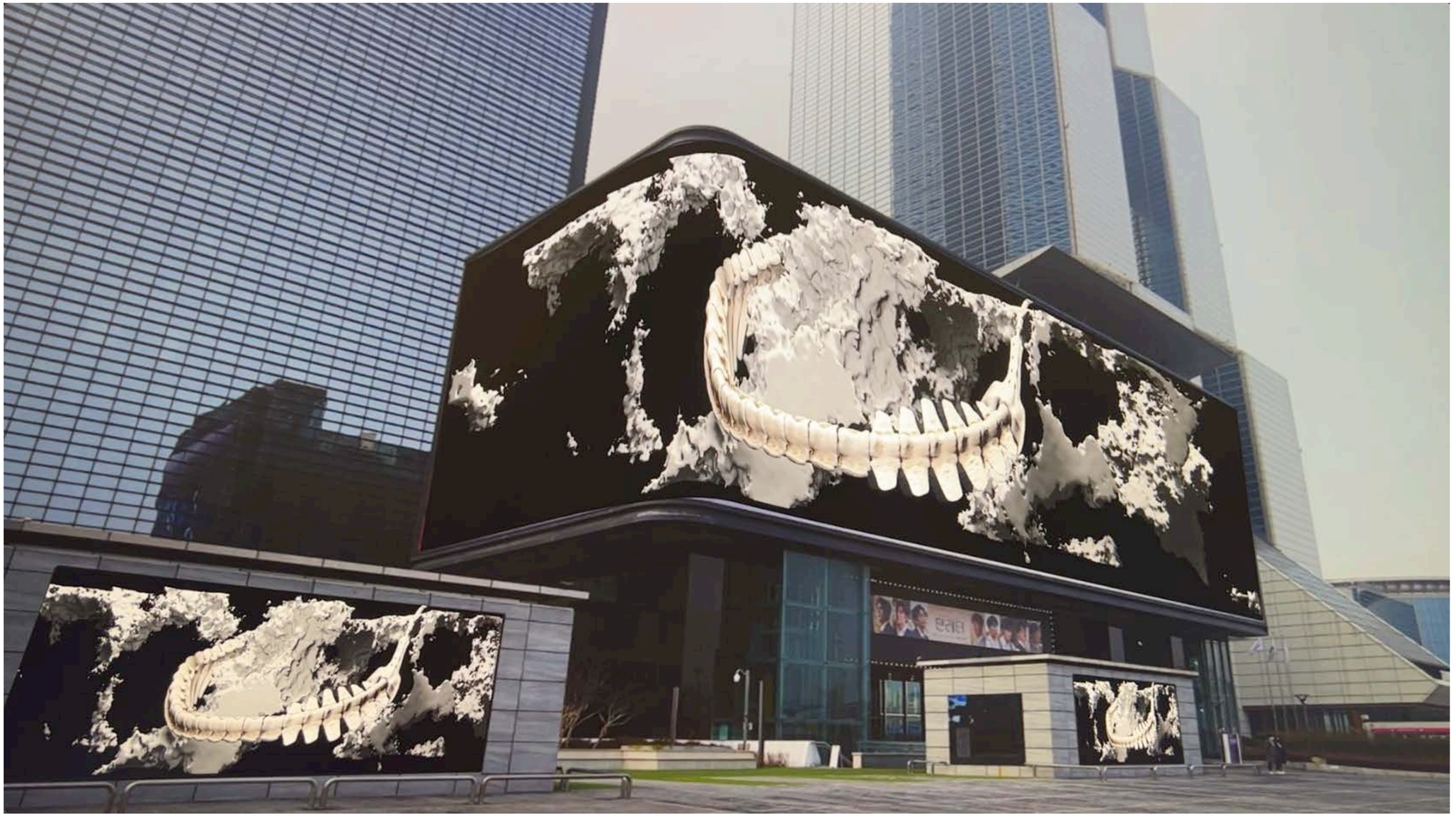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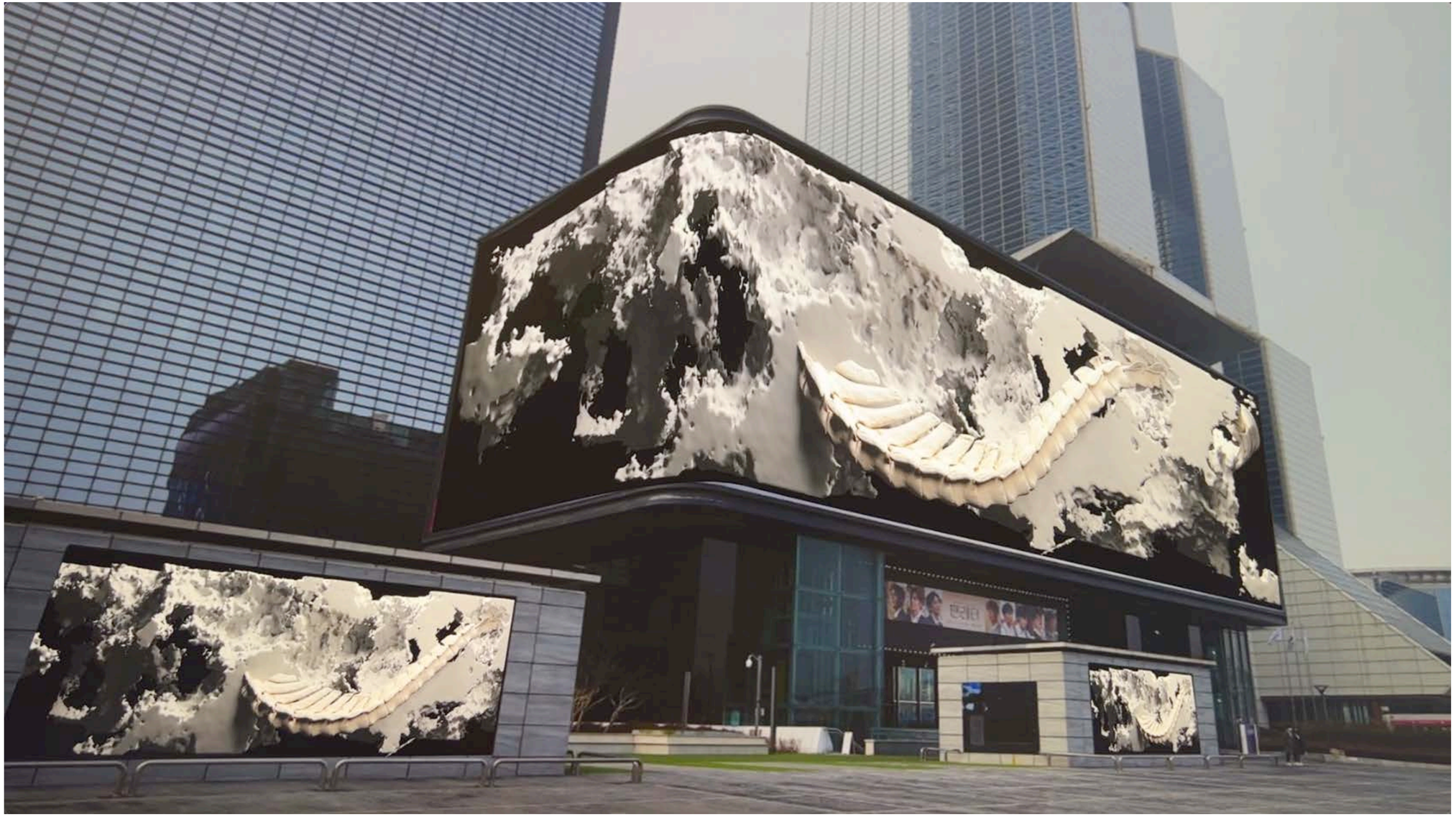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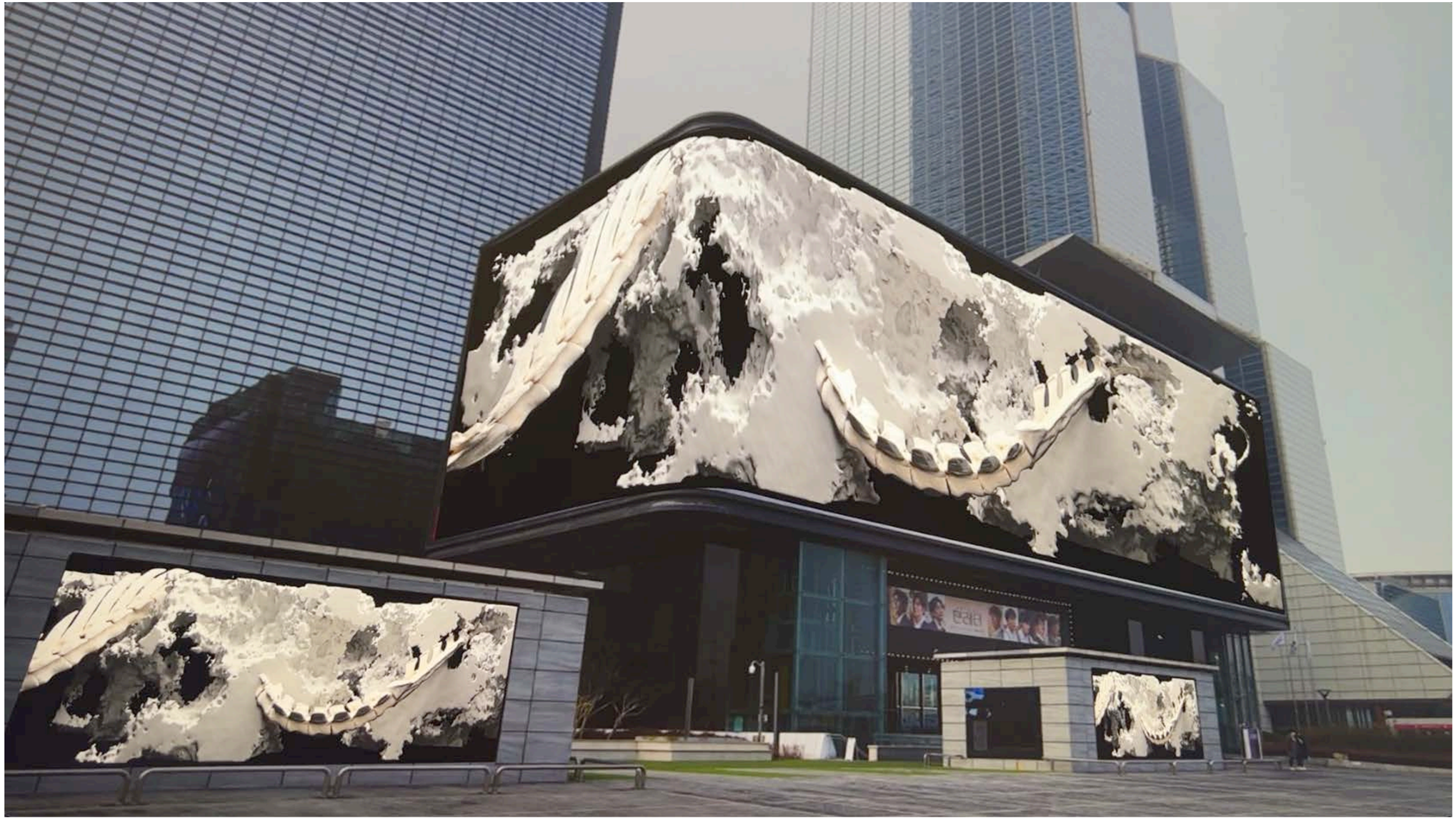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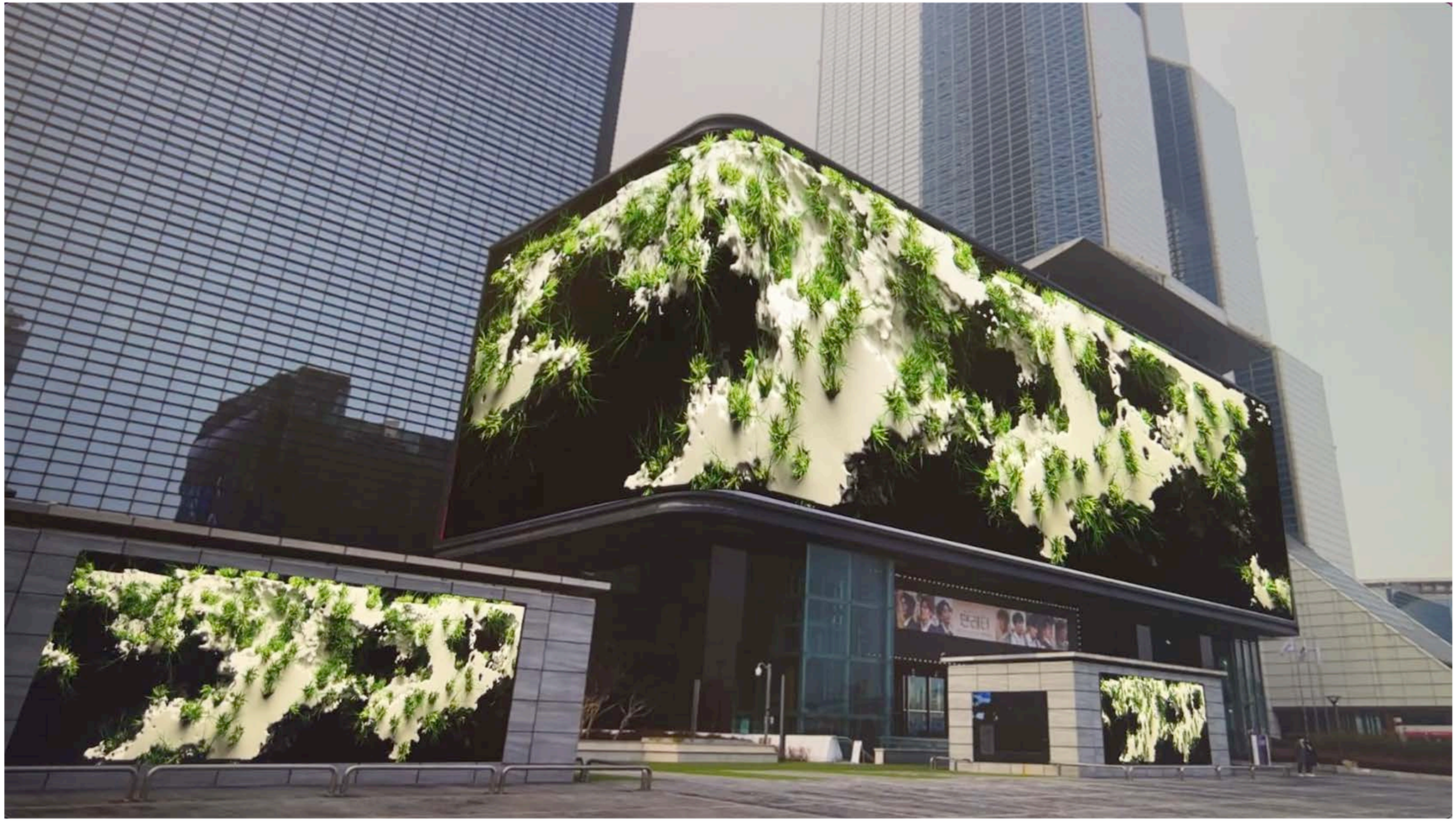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WORK IN PROGRESS RENDER IMAGES



EOA

YIYUN KANG **2022**